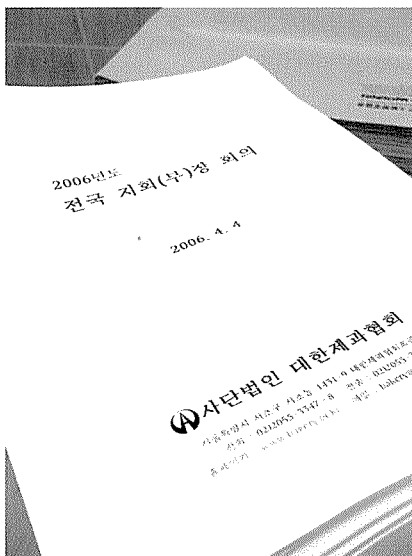




2006년도 전국지회·지부장회의

리더가 앞서야 조직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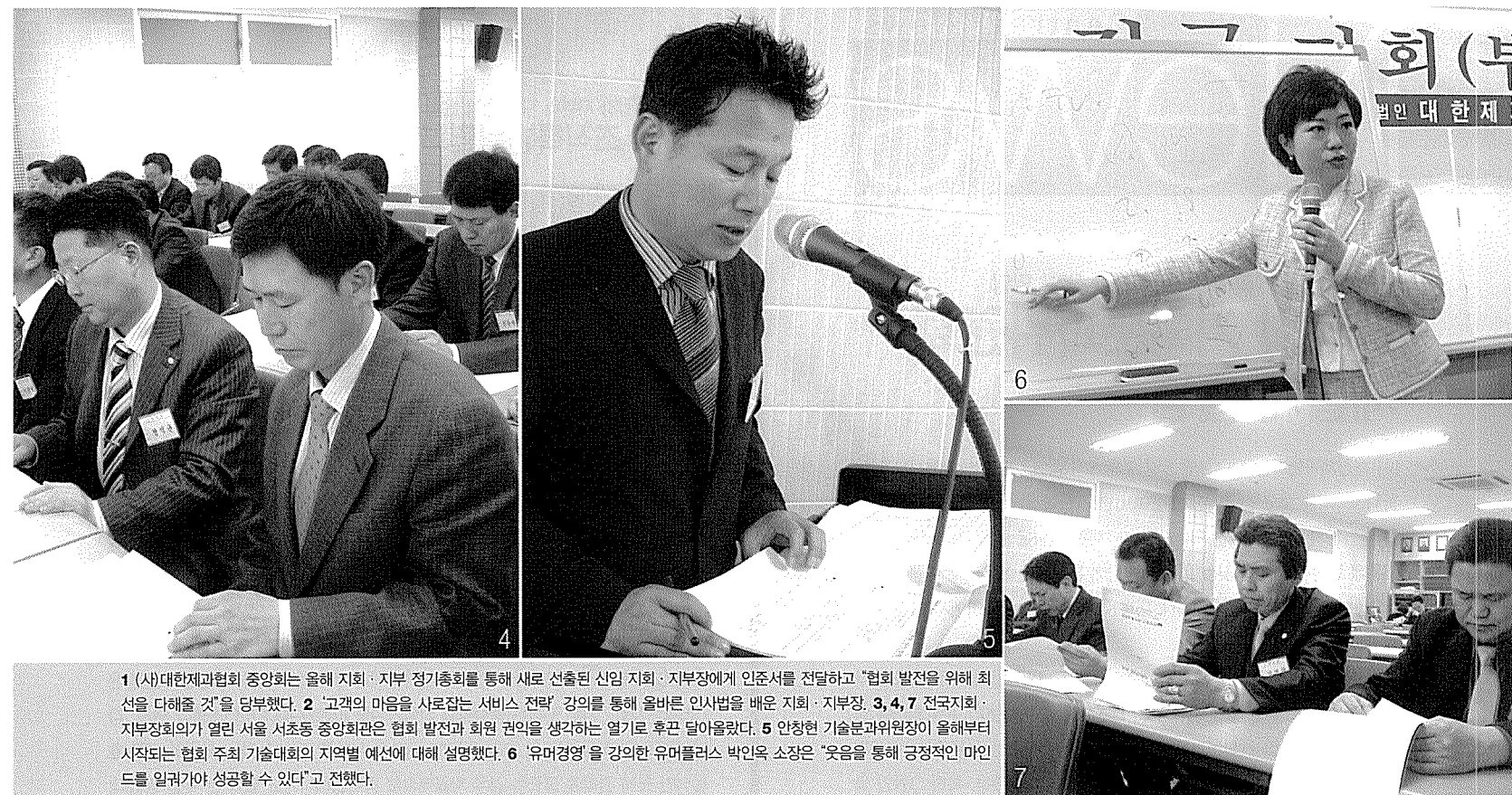
2006년 (사)대한제과협회 전국지회·지부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중앙회관은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생각하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강화된 식품관련법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 이어 경영·서비스·세무 등으로 구성된 알찬 프로그램은 이날 참가한 전국의 지회·지부장에게 업계의 당당한 리더로서 지녀야 할 지식과 혜안을 제시했다. 글과 사진 김미선 기자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4월 4일 중앙회 세미나실에서 전국지회·지부장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회 활동사항 보고와 지도자 교육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회의에 참가한 지회·지부장들은 “서비스 실무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짜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회·지부 운영에 무척 도움됐다”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의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의 지회·지부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사)대한제과협회 조병천 부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조병천 부회장은 “흐르는 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지회·지부의 단결된 힘이 우리 협회는 물론 제과·제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올해 협회가 추진하게 될 자영 제과점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원들 진심으로 존중하는 지회·지부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 중앙회 활동사항 보고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최근의 식품관련법 강화 움직임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방안이 오고갔다. 이날 지회·지부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개정(안), 제과점의 케이크류 진열·보관 판매에 대한 권고사항 등 엄격해진 식품관련법의 세부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협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1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올해 지회·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신임 지회·지부장에게 인준서를 전달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비스 전략' 강의를 통해 올바른 인사법을 배운 지회·지부장. 3, 4, 7 전국지회·지부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중앙회관은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생각하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5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장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협회 주최 기술대회의 지역별 예선에 대해 설명했다. 6 '유머경영'을 강의한 유머플러스 박인옥 소장은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일깨우기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엄격해진 법률과 제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며 지회·지부별로 이와 관련한 회원업소 현황 조사에 착수하거나 관계자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 실무자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식품 영업자의 보수교육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모음에 따라 (사)대한제과협회 지회·지부는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교육의 잠정적 폐지에 대해 지회·지부장은 "가뜩이나 식품관련법이 갈수록 엄격해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위생교육마저 없다면 오히려 회원들이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뺏는 꼴이 될 것"이라며 폐지반대의 뜻을 이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KBS '추적60분'의 식품 첨가물 보도가 베이커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함께 논의한 지회·지부장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는 트랜스 지방을 비롯해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나가기로 하고 일반 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低)트랜스지방 마가린의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지업체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트랜스 지방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지도자로서 지식 해안 넓히는 강의 이어져

이어 열린 2부에서는 각 지역의 제과업체를 책임 맡고 있는 지회·지부장이 지도자로서의 지식과 해안을 지니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서비스·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이어졌다.

'유머경영'을 강의한 유머플러스 박인옥 소장은 "역지로나도 웃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즐거워지고 건강도 좋아져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자신감이 샘솟는 까닭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저절

로 생기기 마련"이라며 "오랜 불경기 탓에 매출이 예전같지 않아 찌푸릴 일이 많을수록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일깨우기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비스 전략' 강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조운혜 강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성을 올바른 인사법과 함께 전달해 지회·지부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회·지부장들은 이날 배운 인사법을 서로 마주보며 복습하기도 하고 고객에게 친절한 인상은 남기되 고객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지나치지는 않은 세련된 서비스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열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의 종류와 요즘 한창 강화되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세법교육을 끝으로 올해의 전국지회·지부장교육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